

목포 입암천 하수도 정비사업 순조

공정률 85%...우수기 전 완공
악취·해충 발생 민원 해소
2.3호 광장 침수예방 효과

목포시가 입암천 악취 등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입암천 하수도 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연장 1.25km에 폭 20~30m의 입암천을 완전히 걷어내고 단면도상 3단계 계단 형태를 띤 인공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해 3월 착공 이후 악취 발생과 해충 서식의 주원인인 갈대와 썩은 갯벌 등 퇴적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맨 아래층인 하상부에 폭 5m에 깊이 50cm의 수로를 설치했다.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든 이유는 조도 계수를 낮춰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배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천의 침전물을 제거(청소)하기 위한 고압 살수 세척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해 물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앴다.

평소 입암천은 유속이 거의 없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린 뒤 이를 방류시켜 발목 정도 깊이 물이 계속 흐르게 한다는 게 사업단의 계획이다.

또 완공 이후 준설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집시설도 5군데 설치한다.

이와 함께 물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던 징검다리를 철거하고 대신 경관이 뛰어난 아치형 보행교를 3곳에 세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상부층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황토로 포장된 산책로가 조성되고 축벽은 그대로 둔다.



목포시가 삼학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입암천 하수도 정비사업이 85%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사업단은 이를 통해 그동안 악취와 모기에 시달렸던 하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끔히 털어 버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번 입암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여름철 집중호우 때 입암천이 저류조 역할을 하게돼 목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 2.3호 광장 일대 침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시 하수와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입암천이 안고 있던 악취·해충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용당 2동, 연동, 삼학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암천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삼중고를 겪어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생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용당 2동, 연동, 삼학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암천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삼중고를 겪어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해 3월 착공 이후 악취 발생과 해충 서식의 주원인인 갈대와 썩은 갯벌 등 퇴적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맨 아래층인 하상부에 폭 5m에 깊이 50cm의 수로를 설치했다.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든 이유는 조도 계수를 낮춰 유속을 원활하게 하고 배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천의 침전물을 제거(청소)하기 위한 고압 살수 세척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해 물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앴다.

평소 입암천은 유속이 거의 없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린 뒤 이를 방류시켜 발목 정도 깊이 물이 계속 흐르게 한다는 게 사업단의 계획이다.

또 완공 이후 준설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집시설도 5군데 설치한다.

이와 함께 물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던 징검다리를 철거하고 대신 경관이 뛰어난 아치형 보행교를 3곳에 세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상부층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황토로 포장된 산책로가 조성되고 축벽은 그대로 둔다.

사업단은 이를 통해 그동안 악취와 모기에 시달렸던 하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끔히 털어 버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사업단은 이번 입암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여름철 집중호우 때 입암천이 저류조 역할을 하게돼 목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인 2.3호 광장 일대 침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시 하수와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입암천이 안고 있던 악취·해충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용당 2동, 연동, 삼학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암천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며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의 사용으로 전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삼중고를 겪어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도교육청·목포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선포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청은 지난 1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 및 선포식'(사진)을 가졌다.

두 기관은 목포 교육발전을 위해 4년간 매년 각 2억원씩, 총 16억원을 투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목포시를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포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목포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지원,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학생중심 교육지원체계 구축, 교육공동체 협력적 관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설정해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목포시는 지역교육의 협력적 파트너로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북카페 설치와 독서토론 활동, 진로체험 활동, 영재교육,



수학, 과학 체험활동, 전통 예절을 통한 인성교육 활동 지원 등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가꾸며 창의적인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목포교육청 교육장은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미래핵심역량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is0533@

하당지구에 청소년문화센터 들어선다

24억여원 투입 올해 말 완공

목포 신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육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문화센터(투시도)가 부흥동 주민센터 옆 등근공원에 건립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업비 24억64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267㎡,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북카페·노래방·댄스실·동아리실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그동안 목포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원도심에 위치한 탓에 하당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중간 용역보고회와 건립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심의위원회, 최종 용역보고회 등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실제 사용될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영했다. 지난 12일 착공했으며 올해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당청소년 문화센터는 이르면 10월 준공될 예정"이라며 "하당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학업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편리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가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7개 과정에 140명을 양성하는 사업을 펼친다. 급식 조리사 양성과정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시, 여성 일자리 창출·재취업 박차

'워라밸' 위한 사업 추진 호응

목포시가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아이 돌봄 등 여성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우선 취업지원기관인 목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출산·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단체 급식조리사, ITQ OA 마스터, 간호조무사, SW 코딩전문가, 직업상담사, 종식 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7개 과정에 140명을 양성한다. 지난해 120명 교육생을 배출, 70%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목표는 80%다. 이처럼 취업률이 높은 것은 지역의 구인구직 수요를 조사한 이후 그에 맞춰 직업훈련 과정을 편성(일명 미스매치 해소)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또 시는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행복 내일'을 위한 희망 플랜'을 수립해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3억3500만원)

을 편다. 특히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 교육을 실시해 바리스타 3급 12명, 조리사 2급 등 22명을 양성한다.

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자격증 양성과정도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취업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자 가정에 아이 돌보미 137명을 파견해 양육을 돕는 게 골자다. 지난해에만 2499명의 가정(10억700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동 주민센터와 자생조직 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아파트단지·유치원·초등학교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지역 내수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을 편다. 특히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 교육을 실시해 바리스타 3급 12명, 조리사 2급 등 22명을 양성한다.

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자격증 양성과정도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취업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자 가정에 아이 돌보미 137명을 파견해 양육을 돕는 게 골자다. 지난해에만 2499명의 가정(10억700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동 주민센터와 자생조직 회의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아파트단지·유치원·초등학교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목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가계 소득 증대와 지역 내수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교도소 수형자 직업훈련, 교수들이 직접 지도

목포교도소 직업 훈련 수형자들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로부터 직접 실습 지도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목포교도소는 지난 12일 한국 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와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노후를 보유한 산업 현장 교수들이 목공인테리어 직업훈련 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 현장 지도에 나서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

목포교도소는 직업훈련 예산절감은 물론 수형자들의 목공기술 숙련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일 목포교도소장은 "올해 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내실 있는 직업 훈련교육으로 숙련된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권기자 dss6116@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